



토트넘 손흥민(왼쪽)이 18일(한국시간) 영국 셰필드 브래클레인에 서 끝난 2020~2021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9라운드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원정경기 도중 상대 수비수와 볼을 다루고 있다. 손흥민은 이날 도움 1개를 보며 EPL 개인통산 100번째 공격 포인트를 완성했다. 셰필드(영국) | AP뉴시스

EPL 100호 공격포인트 손흥민의 '위대한 여정'

셰필드전 오리에 선제골 AS...통산 65골 35도움
표선수 첫 대기록...토트넘선 손흥민 포함 7명뿐

‘손세이셔널’ 손흥민(29·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개인통산 100번째 공격 포인트를 작성했다. 최근 2경기 연속 골대 불운으로 골 맛은 보지 못했으나, 어시스트를 추가하며 팀의 3-1 완승에 일조했다.

손흥민은 18일(한국시간) 영국 셰필드 브래클레인에 서 끝난 2020~2021시즌 EPL 19라운드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원정경기 전반 5분 날카로운 코너킥으로 세르주 오리에의 헤딩 선제골을 도왔다. 올 시즌 정규리그 18번째(12골·6도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등 여러 대회를 통틀어 25번째(16골·9도움) 공격 포인트다. 아울러 2015년 여름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EPL 무대를 밟은 뒤 6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그의 리그 통산 100번째 공격 포인트(65골·35도움)다.

EPL 공격 포인트 100개는 아시아선수로는 최초, 토트넘에서도 손흥민을 포함한 7명만 보유 중인 대기록이다. 손흥민의 단짝 해리 케인(155골·33도움) 외에 테디 셰링엄(97골·44도움), 로비 킨(91골·22도움), 크리스티안 에릭센(51골·62도움), 제미언 테포(91골·19도움), 대런 앤더튼(37골·67도움)이 공격 포인트 100개를 채웠다.

손흥민-오리에가 합작한 득점으로 초반 기세를 올린 토트넘은 90분 내내 안정적인 운영을 했고, 2골차 승리를 챙겼다. 토트넘은 최근 리그 4경기 연속 무패(2승 2무)와 함께 9승6무3패, 승점 33으로 5위에 올랐다.

셰필드 원정은 사실 부담스러웠다. 최근 3무4패로 열세였다. 마지막 승리는 기억도 가물가물한 1975년 12월이었다. 다행히 이 같은 흐름을 끊는 데 성공했다. 케인을 중심으로 팀 공격의 한 축을 맡은 손흥민은 어시스트를 올리고 4분 뒤 케인의 패스를 받아 상대 문전 오른쪽에서 절묘한 킥을 시도했으나 골대를 맞았다. 14일 풀럼전에 이은 또 한번의 불운이다.

그래도 공격과 수비를 오가는 헌신적 플레이를 펼친 손흥민을 향한 현지 미디어의 평가는 좋았다. 통계전문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평점 7.8을 부여했다. 이날 리그 12호 골을 터트린 케인(9.3점)과 결승골의 주인공 탕귀 은돔벨레(8.2점)에 이어 팀 내 3번째로 높은 점수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7.34점으로 역시 케인(7.95점), 은돔벨레(7.87점)에 이어 3번째 순위를 쟁고, 스카이스포츠도 3순위로 7점을 매겼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시즌	출전	도움	골
2015~2016	28회	1	4
2016~2017	34회	6	14
2017~2018	37회	6	12
2018~2019	31회	6	12
2019~2020	30회	10	11
2020~2021	18회	6	12
합계	178회	35	65

※ 정규리그 기준, 18일(한국시간) 현재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1타차 역전...케빈 나 “18년 투어 경험의 힘”

18번홀 버디 잡고 활짝 웃어
PGA ‘4시즌 연속 우승’ 쾌거
세계랭킹 38위~23위 점프
“한국서 뵈겠다” 특별 인사도

순위	선수	스코어	라운드 타수
우승	케빈 나(미국)	21언더파 259타	67-66-61-65
공동2위	크리스 커크(미국)	20언더파 260타	65-65-65-65
	호아킨 니만(칠레)		62-69-63-66
공동4위	미크 리시먼(호주)	19언더파 261타	66-65-65-65
	브랜던 스틸(미국)		65-66-61-69
	웹 심슨(미국)		65-65-67-64

교포 케빈 나(38·미국)가 1년 3개월 만에 승수를 추가하며 통산 5승을 달성했다.

18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 인 하와이(총상금 660만 달러·72억 8000만 원)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로 5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21언더파 259타로 우승했다. 공동 2위 크리스 커크(미국), 호아킨 니만(칠레·이상 20언더파)을 1타 차로 제치고 상금 118만8000달러(13억1000만 원)를 손에 넣었다. 2019년 10월 슈라이너스 아동병원 오픈 이후 1년 3개월 만의 우승 트로피 수직. 이로써 2017~2018시즌부터 2020~2021시즌까지 4시즌 연속 우승 이란 값진 열매도 맺었다.

선두 브랜던 스틸(미국)에 2타 뒤진 공동 2위로 최종 라운드를 맞은 케빈 나 는 스틸, 니만과 함께 챔피언즈에서 팽팽한 승부를 이어갔다. 전반까지는 스틸의 우세가 계속됐다. 케빈 나가 2번(파4)



교포 케빈 나가 18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 인 하와이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케빈 나 는 1년 3개월 만에 승수를 추가하며 통산 5승을 달성했다. AP 뉴시스

홀에서 4.5m 버디 퍼트를 떨구며 1타 차로 따라붙었지만 스틸은 7번(파3) 홀에서 버디를 기록해 다시 2타 차를 만든 뒤 9번(파5) 홀에서 이글로 기세를 올렸다. 케빈 나도 같은 홀에서 버디를 낚아 들

은 3타 차로 전반을 마쳤다.

스틸이 10번(파4) 홀에서 보기로 뒷걸음질을 쳤지만 케빈 나도 12번(파4) 홀에서 역시 1타를 잃었다. 흐름이 바뀐 건 13번(파4) 홀. 케빈 나 는 13번 홀에

이어 14번(파4) 홀에서 연속 버디에 성공하며 14번 홀에서 보기에 그친 스틸 등 4명과 함께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분위기를 탄 케빈 나 는 15번(파5) 홀에서 재차 1타를 줄이며 3연속 버디 행진으로 마침내 단독 선두로 도약했다.

앞선 조의 커크가 먼저 20언더파로 경기를 마친 가운데 16번(파4), 17번(파3) 홀에서 타수를 줄이지 못했던 케빈 나 는 마지막 18번(파5) 홀에서 버디를 잡으며 결국 1타 차 짜릿한 역전 우승을 완성했다. 세 번째 샷을 홀컵 50cm 근처에 세운 뒤 침착하게 버디를 성공시켰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연장 접전 끝에 준우승에 그쳤던 스틸은 ‘4라운드 징크스’에 시달리며 결국 공동 4위(19언더파)로 밀렸다.

우승 뒤 방송 인터뷰에서 18년의 투어 경험을 역전 우승 원동력으로 꼽은 케빈 나 는 한국어로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 우승해서 기쁘고, 언젠가 또 한국에서 뵈겠다”며 특별한 인사를 전했다.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1승을 거뒀으니 올 시즌 목표 하나는 이뤘다”면서 “이제 다시 세계 20위 안에 이름을 올리 고 싶다. 메이저 대회들과 투어 챔피언십은 물론이고 올해는 라이저 컵 참가도 목표로 잡았다”고 밝혔다. 대회 종료 후 케빈 나 의 세계랭킹은 지난주 38위에서 23위로 15계단 상승했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이경훈(30)이 15언더파 공동 19위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김시우(26)는 14언더파 공동 25위, 임성재(23)는 9언더파 공동 56위에 랭크됐고, 최경주(51)는 5언더파 71위에 머물렀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투표 당일까지 흑색선전...이기흥 당선자 ‘통합·화합’ 큰 과제

(대한체육회장)

체육인 상처난 마음 달래기 시급
스포츠 비위 근절 노력 계속 돼야
2032년 올림픽 유치 외교력 강화

대한민국 스포츠행정을 4년간 책임질 ‘체육대통령’이 탄생했다. 18일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선택은 지난 4년간 대한체육회를 이끌어온 이기흥 현 회장 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었다. 이 당선자는 전체 유효표 1974표 중 915표, 득표율 46.35%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핵심은 통합과 화합이다. 이 당선인과 5선 국회의원 출신의 이종걸 민중화해협

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교수가 경쟁한 선거 과정부터 험난했다.

엘리트와 생활체육 통합 2기를 맞이한 체육회 안팎의 결속을 공고히 하고, 한국 체육의 다음 100년을 향한 주춧돌을 놓는 한편 명쾌한 비전을 제시해줄 새로운 수장을 뽑는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에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으나 분위기는 내내 혼란했다.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과 각 후보 진영의 선거인단 직접 접촉 허용 등으로 후보 상호간 비방이 계속된 탓이다. 갖가지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불분명함에 대한 의혹이 쏟아졌고,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이 난무 했다.

또 후보들이 제소와 고발을 일삼으면서 제대로 된 정책 검증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당선자도, 탈락자들도 모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판”이라는 결코 웃을 수 없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투표 당일까지 단일화는커녕 후보들이 저마다 자신들에 유리한 지표와 자료들을 꺼내며 당선을 장담한 가운데 체육인들의 마음은 상처가 가득했다. 결국 선거기간 이리저리 갈라지고 쪼개진 체육인들을 달래주고 변화를 바라는 마음을 한데 묶어 주는 것이 신임 회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책무다.

꿈이었이 불거지는 각종 스포츠 비위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하

고, 체육계의 복지 증진 및 개선, 일자리 확충, 전문 체육에서 풀뿌리 체육까지 물 흐르듯 매끄럽게 순환되는 시스템의 정비도 시급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에 큰 고통을 받는 현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단순한 피해지원이 아니라 지속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많은 체육인들의 호소다.

스포츠외교력 강화도 필수다. 한국은 서울, 평양을 묶어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전에 뛰어난 상태다. 따라서 IOC를 비롯한 해외인사들과 꾸준히 접촉하는 것은 필수다. 신임 회장의 스포츠외교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시즌 3호골...‘원톱’ 황의조, 또 터졌다

니스전 선제골...보르도 첫 2연승
특유의 침투능력...골감각 완전 회복
스트라이커 출전후 6G 3골·1도움

황의조(29·보르도)의 자리는 역시 원톱 스트라이커였다. 황의조는 18일(한국시간) 알리안츠 리비에라에서 끝난 2020~2021시즌 프랑스 리그1 20라운드 니스와 원정경기 선발출전해 후반 5분 선제골을 터트리며 팀의 3-0 승리에 기여했다.

원톱으로 나선 황의조는 초반부터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며 호시탐탐 득점을 노렸다. 득점은 후반 5분 나왔다. 오른쪽 측면에 위치했던 팀 동료 야산 이데리의 땅볼 패스를 받은 황의조는 문전에서 넘어지면서 슈팅해 상대 골망을 흔들었다. 시즌 3번

째 골이자, 3경기만의 득점이었다. 황의조는 후반 22분에도 상대 선수 2명을 제친 뒤 오른쪽 슈팅을 날렸으나 수비의 몸에 맞으면서 추가 득점에 실패했다. 보르도는 후반 30분 레미 우당, 후반 42분 토마 바시치의 추가골로 완승을 챙겼다.

이날 경기를 통해 황의조는 다시 한번 스트라이커로서 매력을 과시했다. 시즌 초반 주로 측면 공격수로 뛰었을 때는 좀처럼 정체성을 찾지 못했다. 개막 이후 13경기에서 골을 뽑지 못해 출전시간이 줄어드는 등 입지까지 흔들렸다.

황의조에게 맞는 옷은 역시 스트라이커였다. 지난달 17일 생테티엔전(1-2 패)에서 스트라이커로 출전해 시즌 첫 골을 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이날 경기까지 최근 6경기에서 3골·1도움을 뽑았다. 스트라이



보르도 황의조(오른쪽)가 18일(한국시간) 2020~2021시즌 프랑스 리그1 20라운드 니스와 원정경기 후반 5분 선제골을 터트리며 팀의 승리를 이끌고 기뻐하고 있다. 황의조는 최근 6경기에서 3골·1도움을 뽑으며 시즌 초반의 부진을 털어냈다. 사진출처 | 지용명 보르도 SNS

커로 나서면서 완전히 골 감각을 되찾은 모습이다. 이날 추가득점까지 올리는 못 했지만, 특유의 불 없는 움직임 통한 침투능력을 바탕으로 상대 오프사이드 라인

을 무너트리는 등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어 냈다. 이 같은 황의조의 활약에 힘입어 보르도는 시즌 첫 연승을 달성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